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왕국절 제1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 예배로의 부름 .....	다함께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0. 여호와 하나님 .....
♠ 공동기도 .....	다함께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되, 필요할 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건강을 보존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거룩한 영혼을 주시어 선하고 맑은 것을 식별하는 눈을 갖게 해주시고, 악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망과 탄식이 버릇처럼 되어버린 삶에서 벗어나, 살아있음에 기뻐하며 모든 사건과 사물 속에 깃든 신비에 놀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발견하는 영혼의 유연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더불어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살게 해주시고, 너그러운 유머로 다른 이들을 품어 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호10:12 .....
♠ 교 독 문 .....	41. 이사야 65장 .....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대표기도 .....	I. 최성애 집사 II. 조병무 장로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256. 눈을 들어 하늘 보라 .....
성경봉독 .....	I. 엡4:17-24 .....
	II. 마11:25-30 .....
	안길상 집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벗을 것, 입을 것 .....
	김기석 목사
	II. 눈을 뜨면 보인다 .....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409. 목마른 내 영혼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려 듣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며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다 함 께 : 주님,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무겁지만,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옛 생활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지만, 힘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들어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제4회 신앙강좌	신명기 강해(13)
강사 : 박범희 집사	기도 : 안홍숙 집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박정숙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정옥영 집사

<b>8월</b>	영접위원	조병무	김용길	박범희	이순정	박옥순	박미영
	헌금위원	윤정덕	이인웅	김중수	김애경	구명자	김명순

## 경탄하는 능력을 회복하라

“아침과 봄에 얼마나 공명하는가에 따라 그대의 건강을 가늠해보라. 자연의 깨어남을 보고도 그대 속에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른 아침 산책을 해도 잠이 달아나지 않는다면... 이른 아침 가장 먼저 귓가를 두드리는 새의 노랫소리에도 전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깨달으라, 그대 인생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버렸음을. 맥박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헨리 데이빗 소로우, <저널>, 1850년 2월 25일.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건강 체크법이군요. 요란한 자명종 소리에 깨어나는 우리들의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계절이 오고 가도 그런가보다 하고, 더우면 가을이 빨리 왔으면 하고, 추우면 봄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도무지 순환하는 계절의 리듬을 타고 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소로의 말에 자극을 받아 교회 마당가로 나갔습니다.

해바라기가 벌써 검은 씨를 드러낸 채 익어가고 있고, 맵시있던 옥잠화 꽃잎이 진 자리에는 열매를 거두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분꽃은 아침에 수줍게 피었다가 슬며시 꽃잎을 닫고 휴식 중입니다. 집사님의 거친 가위질을 피한 나팔꽃 몇 송이가 몰래 숨어서 피어있습니다. 그 자태가 참 화사합니다. 흰나비 한 마리 날아와 꽃 사이를 나는 데 영 쓸쓸해 보입니다.

이렇게 여름은 가고 있습니다. 고어로 여름은 열매를 뜻한다지요? 계절의 여름이나 열매를 뜻하는 여름이나 그 원형은 ‘너름’(夏)으로 같습니다. ‘너름지기’는 그래서 농사꾼의 순 우리말입니다. 농부는 다름 아닌 너름을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인생의 너름지기들입니다. 때에 맞는 너름 잘 짓고 계신지요.

햇볕으로 검게 탄 후배를 보면서 여행이 즐거웠던가 물었더니, 이틀 동안 피약별 아래서 배추씨를 심었더니 그 모양이 되었다며 씩 웃습니다. 처서가 지난 후 조석 바람이 선들 해서 짝이 날지 모르겠다며 제법 너름지기다운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날 보내 온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보입니다.

“연 이틀 밭일을 하면서 농사일이 꾸준해야 되는걸 새삼 느낍니다. 풀 잡는 것도 꾸준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미루었다 하니 까 엄두가 안 나곤 합니다. 씨앗이 잘 받아하길 기도합니다.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니까 날씨 걱정도 하고 무상한 날씨에 늘 마음 조리게 되고 그러네요.”

이쯤 되면 반 농사꾼은 된 셈인가요? 천안 단비교회의 정훈영 목사님은 밭에서 호미를 잡고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했었지요. 어쩐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을 밥벌이로 하는 이들에게 농사는 그야말로 고역이지만, 그것을 마음 공부로 하는 이들에게는 귀중한 정화의 시간입니다. 산돌학교는 감리교회가 시작한 대안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교과과정에는 바느질, 요리, 목공, 농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교과를 짜는 이들은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들이 농사에 염증을 내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그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농사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과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분배된 밭에 씨앗을 심고 돌보는 일에 아이들은 정성을 다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반생명적인 세상에 살면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만,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하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자판을 두드리며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을 즐기던 아이들이 식물을 돌보고 병아리를 돌보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흐뭇합니다.

생장조락(生長凋落, 나고 자라고 시들고 떨어지는)하는 생명의 한살이를 관찰하려는 이들은 고스란히 몇 계절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맥박이 뛰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신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제 아내가 ‘꿈틀이’라고 부르며 기겁을 하는 송충이도 편견 없이 보면 그 빛깔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나뭇잎 하나의 기하학적인 구조는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보의 양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경탄하는 능력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이 아닐까요? 가을이 오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행복하시기를 빕니다.(석)

## ▣ **마/음/으/로/읽/는/글**

# 기 도

구약성서에서 인간에게 나타난 신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시나이에서  
신의 존엄은 모세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구름에 싸여 있다.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사랑보다 두려움의 대상이다.  
신 앞에서 인간은 등을 둥글게 굽히고  
그 왜소함 속으로 빠져든다. 그리하면  
인간은 신의 분노를 피하기 쉽다고 믿는다.  
기독교의 혁명은 예배하는 자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두려움 대신 사랑이  
자리한다. 타보르 산상에서 예수가  
바오로, 야곱, 요한에게 그 신성하고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시니 ‘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복음서는 말한다. 인간의 얼굴이  
강생하신 그리스도의 성성을 받는다.  
성스러운 땀이 영상을 짓누르던  
저주에 종지부를 찍는다. 예수는 인간을  
일으켜 세우고 턱을 받쳐  
땅으로 숙였던 얼굴을 들게 한다.(미셸 투르니에, 『뒷모습』 중에서)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김훈동 유경순 김준호 곽혜자 박규석 박경선 박애순  
 박성수 김애경 노정숙 임창선 이영란 김 극 배상순 박시내 고사일  
 최영선 한인철 조윤숙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김시영

### 월정헌금:

유증희 이재문 윤성종 김윤정 백묘현 최주환 문복순 권미정 이용희  
 박준희 이기분 고숙이 이갑재 전영자 조동길 배부례 이증자 최성애  
 하현철

### 감사헌금:

백묘현 이정은 김창원 정지은 김상태 무명1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침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왕국절기** :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왕국절기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2. **신앙강좌** : 오늘 오후집회는 제4회 신앙강좌로 박범희 집사님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기획위원회**: 오후집회 후에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4. **연합속회** : 9월 3일(금)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시온 속 식사준비 - 갈릴리 속  
점심 식사 후에 선교부가 주관하는 전도행사가 있습니다.
5. **봉사** : 우리 믿음은 봉사를 통해 성장합니다.  
종묘급식봉사 - 9월 1일(수) 오전 11시 15분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 - 9월 3일(금) 오후12시 30분
6. **심방** : 9월 7일(화)부터 특별 심방을 실시합니다. 김재홍 목사님과 일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신앙실천** : 8월이 가기 전에 냉장고를 정리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생명의 밥상을 차리기 위한 방법들을 상의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 헌화 : 김애경 권사 (남편 생일)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